

사설

대불청에 바란다

일제하 만해스님의 뜻을 받들어 창립된 대한불교청년회는 명실공히 한국청년불자의 대표기구로 자리잡아왔다. 77년의 오랜 세월은 결코 짧은 연륜이 아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군단을 거쳐 급격한 근대화를 성공시키고 이제 고도산업과 정보화의 세기를 내다보고 있는 가위 삼전백해의 세월을 버텨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증직한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대한불교청년회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많은 성과와 의미를 축적시켜온 고목이다. 그런 청년회가 최근 몇년간 조직이나 활동면에서 예전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이다. 우선 조직면을 보더라도 청년회는 전국조직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지방이나 단체의 세부조직이 잘 정비되지 못했고, 또 이들 하부조직을 관할하고 통합하는 중앙의 리더십이 부족했지 않았나 한다. 이번 제19대 중앙청년회장단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조직의 정비를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 재원의 확보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기관이나 단체도 적절한 재정과 자원의 확보없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뜻을 갖고 원(願)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기적으로 회비를 모으고 기부금을 확보하며, 또한 생선의 일정한 몫을 시주하고 보시하는 현대판 탁발(托鉢)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사업을 적절히 구상할 수 있고, 또 일을 차질없이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불교도들은 대체로 이런 류의 일에 서툴다. 세속의 잡사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속을 방편으로 이용하는데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대승은 소승의 엄격한 무소유에 대해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다. "자비(慈悲)와 보시(布施)가 불교도의 일인데 손에 쥘게 아무것도 없이 뭘 어떻게겠느냐."

그래서 대승은 재물이나 소유에 대해서 훨씬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 물론 사리와 사욕으로 재물을 탐한다면 지옥갈 업을 짓는 것이로되 부처님의 말씀을 이땅에 널리 울리게 하는 대승의 고귀한 사업에는 정재(淨財)가 필수불가결하다.

아상(我相)과 소유상(所有相)만 떨치면 두루물물(頭頭物物)이 모두 법계의 소식이다. 70년전 만해스님이 불교교신론에서 주장한 바의 정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대한불교청년회는 그 뜻을 다시금 새로이 되새겨야 할 줄 안다.

이와 아울러 청년회는 불교 본연의 수행과 신앙을 엄정하게 닦고 지켜나가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불교는 아라한과 보살의 고결한 위의를 바탕으로 문호가 형성되고 풍파가 형성되어 중흥(中興)을 이룩해온 전통을 갖고 있다. 수행의 깊이와 정신적 지도력이 없다면 앞의 사업은 모래 위에 지는 누각일 뿐이다.

오계(五戒)를 정갈하게 수지하고, 예배와 독경에 게으르지 않으며, 장경의 의미와 실천에 정진하는 모습을 통해 청년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잠재적인 신도들을 그 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정보화 국제화에 걸맞는 조직과 활동을 기획하고 참언해나 가라고 주문하고 싶다.

체(體)를 굳건히 지키면서 용(用)을 여하히 운용하느냐가 한국불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은 유연함과 패기로 안팎의 어려움에 처한 한국불교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전위의 역할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황룡사탑·미륵사지 복원하자”

문화비전 2000위원회 디지털박물관·문화관광벨트 등 14건 정부 건의

2천년대 문화국가 건설을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황룡사9층탑과 미륵사지의 복원이 중요사업으로 제안됐다. 또 지역공동체의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21세기 과제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종교단체나 학교 등에서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문화활동을 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문화비전2000위원회’(위원장 최정호, 연세대 교수)는 20일 문화의날 기념식에서 문화체육부에 ‘문화비전2000-문화의 세기가 오고있다’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 사업으로 △황룡사9층탑·미륵사지 복원을 비롯 △2000년 문화예술축제 △대지될 도서관 박물관 건립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14건을 건의했다.

특히 황룡사9층탑·미륵사지 복원은 조상의 기상을 확인하고, 한국관광의 새 명소를 제공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시하고 오랜 전통문화의 이미지 창출과 문화관광의 명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건의된 사업들은 향후 공청회와 함께 추진기단이 구성돼 가능성을 타진한 후 최종 확정된다. 사업의 추진도

2000년을 기점으로 착수된다. 문화비전2000위원회는 21세기는 15세기 세종대왕 시대, 18세기 영·정조시대에 이어 우리 역사에서 3백년 주기로 나타나는 문화흥흥기로 '제3의 한국문

화 르네상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가치의 상호공존으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문화의 상호공존, 상생과 호혜로 전개될 때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진각종 사회복지법인 설립 추진

내년부터 복지관·어린이집 등 운영 실버타운·병원·장묘사업 등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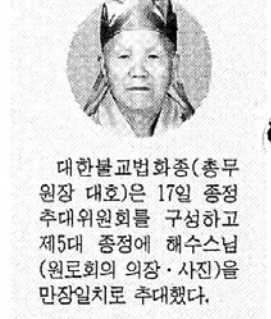
진각종(통리위원장 성초)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다. 진각종은 22일 통리원에서 열린 제311회 정기총회에서 (가칭)회당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인준한데 이어 23일에는 발기인 총회를 갖고 성초 통리위원장 등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선출하는 등 복지법인 설립에 따른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진각종은 고정자산(부동산) 5억원에 최소운영비 5천만 원 등 보건복지부의 복지법인 설립요건을 갖춰 빠른 시일내에 설립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1차년도 사업개시일을 내년 1월로 잡고 있는 복지재단의 주요 사업은 회당장학생 사업, 대구교구청 정도 수도원의 사회복지

조계종 정기총회 11월1일부터 보름간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설정)는 제129회 정기중앙총회를 11월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의 회기로 개최기로 했다. 이번 총회는 금년 종무행정 감사 보고와 내년 예산의 심의 승인의 건, 종무보고의 건과 128회 임시총회에서 이월된 종헌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10여개 안건을 심의한다.

대한법화종 5대종정 해수스님 추대



대한법화종 5대종정 해수스님 추대

대한법화종(총무원장 대호)은 17일 종정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5대 종정에 해수스님(원로회의 의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합동징수 합의 부분수정 필요”

조계종 관람료위 요구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위원장 설조)는 22일 오후1시 회의를 갖고 총무원이 14일 정부와 합의한 내용에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조정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징수한다는 내용에 대해 부분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관람료위원회는 회의에서 “14

일의 합의는 관람료 인상에 대한 종단의 자율권을 포기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언제부터 공원입장료를 폐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한을 명확히 하지 않는데 이번 합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관람료 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합동징수사찰 주지스님들과의 연석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일부 수정해 재결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8~19일 화성 신촌사에서 6백여명의 신행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신도교무금 ‘중신회’ 지원 필요”

신도회 발전방안 종단에 건의키로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는 18~19일 화성신촌사에서 총무원장 힐주, 포교위원장 성타, 교육위원장 암도스님 등 조계종 3원장을 비롯 신행단체 대표 등 6백여명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신행단체대표자수련대회 개최하고 총무원에 신도회 발전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중앙신도회는 수련대회 첫날 ‘바람직한 신행단체의 미래상’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신도교

무금의 중앙신도회 지원 △교구 본사는 신도교육과 수련회 개최 △사찰운영의 신도회 참여 등에 의견을 모으는 한편 소위원회를 구성, 이같은 내용을 총무원에 전달키로 했다. 소위 구성은 회장단에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송재건회장은 입재식 인사말에서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가르침을 근본이념으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불교인이 되자”고 당부했다.

“禪은 정보사회 상상력의 보고”

조계종 ‘전법활성화’ 심포지엄

‘불교는 정보사회에서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 이같은 물음에 정보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나 준비, 좌표설정 등이 없는 것이 불교의 현실이다.

위의 물음에 현기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부소장)은 “조계종이 정보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선에 있다”며 “선을 조계종의 일골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진단을 내렸다. “선은 정보사회의 인간에게 정보에 관한 자기한계를 깨뜨리고 정보의 무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전법외해 조직위(위원장 월주)가 2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주최한

‘전법활성화를 위한 불교 변화의 방향’ 심포지엄에서 현기스님은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은 정보에 있지 않으며 인간의 정신이 자유로워질 때 이 능력은 갖춰질 것”이라며 “그 무엇보다도 자

해 △신도교육의 체계화 △위탁신행에서 자율신행 △강의 위주에서 감성위주의 실천 신행으로 △신도조직의 세분화 △문화중심의 신행 △지역사회에 헌신 △상당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준스님(목포 길상사 주지)은 ‘한국불교에서 다양한

신도교육체계화·자율신행 강화 ‘방편개발연구원’ 설립도 제안

유롭게 하는 방법이 선이며, 따라서 정보사회에 사람들에게 불교는 이미 다른 종교에 앞서 그 대안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은 자료로 제출한 ‘전법 신행의 현대화와 과제’를 통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 불교의 방편이나 경전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개발, 누구나 불교에 접할 수 있는 보편화가 절실하다며 종단차원의 ‘방편개발연구원’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불교발전 원동력은...

온양 보문사

대웅전, 지장전 낙성식 및 봉불식 보문 복지원 준공식

■ 초대 의 말씀 ■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철보사에서는 온양에 대웅전, 지장전, 누각, 복지원을 지어 봉불식 및 점안 법회와 준공식을 「고승콘스님, 운경콘스님, 관응콘스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거행하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 하시어 선근 인연을 쌓으시고 가내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철보사 회 주 강 석 주
주 지 김 오 월
보문사 주 지 황 현 관
전주지 오 정 목

- 일 시 : 불기 2541년(1997) 11월 10일(음력 10월 11일)오전 10시
- 장 소 : 온양 보문사 대웅전
- 중 명 : 운경콘스님, 관응콘스님, 고승콘스님
- 연락처 : 02/732-1422/4 서울 종로구 삼청동 4 0418)545-6531 충남 온양시 염곡면 송정리